

군산조선소 새 주인 맞이 재도약 뜻 올려

제이오션중공업-HD현대 본계약 블록생산 넘어 완전한 조선소로 2027년부터 건조공정 단계 전환 초대형 원유운반선 건조 목표

가동 중단과 블록 생산 기지 전략 등으로 부침을 겪은 군산조선소가 새 주인을 맞이하며 완전한 선박 건조 조선소로의 재도약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제이오션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군장관에서 자산 양수도 및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하화정 제이오션중공업 대표, 금석호 HD현대중공업 공동대표,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 등이 참석해 군산조선소의 새 출발을 공고했다.

이번 본계약은 지난 3월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과 HD현대중공업이 맺은 합의각서(MOA)의 후속 조치다.

계약에 따라 신설 법인인 제이오션중공업은 연내 양수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이오션중공업은 오는 2028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본격 건조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HD현대중공업의 발주 물량인 선박 블록 생산을 유지하면서, 공정과 설비를 전면 정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박 건조 공정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조선소는 2023년 재가동 이후 연 10만 톤 규모의 블록을 생산해 왔으나, 독자적인 선박 건조 기능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도는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HJ중공업의 설계·건조 기술력을 결합해 군산조



<사진=군산시>

선소를 K-조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장 전문 기술인력 양성, 선수금급보증(RG) 발급 지원, 조선소 제조 인공지능(AI) 전환 등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오션중공업의 초대 수장은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인을 지난 조선 전문가 하화정 전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고문이 선임됐다.

/최성민 기자

'청렴일터 아웃포스트' 道 감사위 가동

청렴 현장 소통형 제도 도입 기획조정실 시작 전 실국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청 내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소통형 시책인 '청렴일터 아웃포스트'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직원을 대상으로 제1차 청렴일터 아웃포스트를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개설했다.

이 시책은 일방적인 청렴 정책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부서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감사위는 앞서 진행한 청렴 리스크 심층 진단과 청렴 패트롤 운영 결과, 직원들이 인사 기준, 상급자의 업무 지시 및 갑질, 내부 신고 문화

등에서 부패 제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첫 교육에서는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인사 제도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익명 신고센터 운영 방식과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을 안내했다.

도 감사위는 이번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각 실·국의 업무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청렴일터 아웃포스트를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직원 의견은 향후 청렴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한다.

김진철 감사위원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일상 업무에서 공정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군산항·새만금신항 발전 다각화 모색

항만물류 연구·자문회 개최 무탄소 항만 전략 집중 논의 "앵커기업 유치 시급" 뜻 모아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항 활성화와 새만금 신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친환경 경 물류 인프라 구축과 앵커기업 유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5일 군장상황만(썬)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항만물류 연구·자문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시, 전북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항만물류 학계·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대형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위한 군산항 수심 확보 유지준설 예산과 제2준설도 투기장 조성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군산항 4·5부두 리뉴얼, 특송화물 통관장 X-ray 검색장비 추가 도입(3대→5대), 새만금항 신항 건설 등 핵심 인프라 확충 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나정호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 변화를 짚었다.

나 연구원은 새만금 신항이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생산과 에너지 기능이 결합한 복합 항만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K-무탄소 커플링 시티' 모델을 제안했다.

수출 경쟁력이 가격 중심에서 탄소 배출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만큼, 무탄소 항만 체계 선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종합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새만금



<사진=전북도>

신항의 초기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항만 배후 부지와 연계한 대형 앵커기업 유치가 시급하다는 뜻을 모았다.

박해열 전해양항만과장은 "이번에 논의된 무탄소 에너지 기반 전략은 새만

금 신항이 미래형 친환경 항만으로 성장하고 초기 물동량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전북권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조배숙 '마약 근절 4법' 대표발의

신설·장소 제공 업소 행정처분 제재·영업폐쇄 등 강력 조치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근절 4법'을 대표발의했다.

대검찰청 2025년 자료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1만 6,153명 △2022년 1만 8,395명 △2023년 2만 7,611명 △2024년 2만 3,02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확인된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마약류 감정 건수는 총 14만 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약 4만 3천 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마약 범죄의 확산이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간 가장 높



조배숙 의원

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뿐,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마약 유통과 투약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청소년 등 전 연령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구역(Clean Zone)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영록 기자

남원·임실·순창, 농촌공간 미래 청사진 수립

3개 시군 10년 기본계획 완료

전북도는 도내 농촌지역 13개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마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남원시는 '사람과 산업, 문화가 연결되는 상생농촌, 활력 넘치는 남원'을 비전

으로 2026~2035년 서부권을 융복합 농산업 중심지, 중부권을 도농 상생거점, 동부권을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육성한다.

임실군은 '지역가치의 도약, 삶과 힘이 조화로운 명품 임실'을 비전으로 같은 기간 북부권을 육성호·섬진강 수변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산업·생태·관광 복합지로, 남부권을 친환경·스마트농업과 체험·치유·관광 기능을 갖춘 거점으

로 키운다.

순창군은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을 비전으로 2025~2034년 북서부권을 복흥면을 생활서비스 거점, 구림면을 농촌융복합산업 거점으로 삼고, 중동부권을 장류산업 특구 등 기존 특구와 농업·관광·헬스케어 융복합산업을 육성한다.

도는 2027년부터 시군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

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문가 지역협의체와 함께 월 단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해 나머지 10개 시군도 올해 12월까지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시군이 이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본사 사령>

△임명 부안 주재 신상수

-6월 29일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전북도 벤처투자 플랫폼 'J-피움' 가동

<경제 투자 매칭 플랫폼>

전국 VC·AC 등 70여명 참여... 도내 유망기업 투자유치 본격 지원

전북도와 전북TP는 지난 26일 '전북 벤처투자플랫폼 J-피움(PIUM)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J-피움(PIUM)'은 전북(Jeonbuk)의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검증(Prove)하고 투자(Invest)로 연결해 성장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은 정례 투자매칭 플랫폼이다. 특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수요피칭마루' 통해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전북TP 'J-피움'을 통해 투자와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IR 피칭에는 △모나 일렉트릭(AI 기반 배터리 안정성·수명 예측) △사이클레스(가축분뇨 활용 탄소배출권 인증 솔루션) △세형아마존(무동력·오일레스 기술 기반 솔루션) △이브이엔솔루션(폴드체인 특화 전기특장차) 등 도내 유망기업 4개사가 참여해 기술력과 사업성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했다. 도는 앞으로 연 5회 이상 정례 IR 라운드를 운영하고 투자사와 기업 간 1대1

사전 매칭, 사후 컨설팅 등을 통해 투자연계와 후속 성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에는 도 벤처펀드 운용사(GP),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창업지원기관, 스타트업 등 70여명이 참석해 도내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비 5040만 원을 전달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장애아동의 성장과 자립 응원"

임직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5천만원 후원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아동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연금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국민연금은 올해도 재활치료가 시급한 저소득 장애아동 21명을 선정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 아동들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 이용과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연금의 임직원 나눔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1인 1눔 갖기' 사업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기부해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는 나눔 활동이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가족과 함께 신입직원 새 출발" 축하

신입직원 93명 가족 95명 초청 수료식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6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새 율림홀에서 2026년 신입직원 교육수료식을 개최하고, 신입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출발을 응원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신입직원 93명(경영관리직 12명, 기술직 78명, 연구직 3명)과 부모님 등 가족 95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신입직원의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가족과 함께 축하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족 초청 교육수료식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는 교육활동 영상과 신입직원 대표선서, 교육 우수자 포상, CEO 인사말, 임명장 및 사원증 수여, 가족과 함께하는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찬에서는 신입직원과 가족들이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임명장 수여와 기념촬영을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며 신입직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는 단순한 수료 행사를 넘어 가족과 함께 조직의 시작을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화영 사장은 "신입직원 여러분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기안전 전문가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령과 책임, 국민을 향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KESCO인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이날 "오늘 이 자리는 신입직원뿐 아니라 오랜 시간 곁에서 응원해 주신 가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6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새 율림홀에서 2026년 신입직원 교육수료식을 개최하고, 신입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출발을 응원했다. /김영태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풍수해 '배수장 관리체계' 강화

사전 재해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해 전북지역 95개 배수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예방정비를 완료하고 신속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공사는 5월까지 전북지역 95개 배수장의 관리상태 점검과 가동훈련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배수장 11개소에 대한 사전 예방정비(PM)를 완료했다. 또 배수펌프 및 제진기 등 주요 설비의 고장에 대비해 권역별 전문업체와 긴급 점검·정비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본부 기술지원을 연계한

응급복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배수장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한 자동화 운영을 위해 노후 CCTV 성능개선 및 보수를 완료했으며, 태양광 전원 이동식 CCTV를 도입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시범 배수장 운영을 통해 선제적인 재해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풍수해에 대비해 엔진양수기 13대 및 수중펌프 14대를 사전에 확보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시 신속하게 현장 설치할 수 있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시설 유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기·기계분야 실무교육 및 재해대비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유튜브 쇼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김동인 전북지역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관리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대비해 전북지역 95개 배수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예방정비를 완료하고 신속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회 '화합 역량 강화의 장'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25일 회장단·원로회원·윤리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원·윤리위원 '화합 역량 강화의 장'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원로회원 및 윤리위원들의 적극적인 원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원로회원·윤리위원 상호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를 진행하고자 협회 주요 업무 동향을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약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와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민선 9기 전북도정에 대해 공공사업 및 신재

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우리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인 적정공사비 책정을 통한 '제값 받기'를 위한 '건설환경'조성을 통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상의협의회 "반도체 산업, 새만금이 최적지"

국가균형발전공급망 안정 RE100자산지소 실현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 전북 새만금이 최적지입니다" 제목의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에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넘어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생산거점의 분산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생산거점 다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은 광활한 산업용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 여건을 갖춘 미래 첨단산업의 최적 입지"라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RE100 이행이 중요한 글로벌 산업환경을 언급하며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의 집적을 넘어 에너지와 산업이 함께 순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이를 지역 반도체 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 새만금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벨트와 연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유치는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만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가장 부합하는 선택은 전북 새만금"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 회장은 "전북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산업용수 등 핵심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새만금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전북에서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와 관계 부처, 국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송부해 전북 새만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고창군, 토양병해충방제용 토양소독기 현장 연시회

고창군이 지난 25일 무장면 목우리멜론 재배 예정지에서 선운산멜론작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양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현장 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시회에서 토양소독기 방제 기술 공유 및 운전 시연, 현장 의견 수렴 등으로 농업인이 겪고 있는 토양 병해충 피해 저감 해법을 제시했다. 시연된 토양소독기는 트랙터에 부착해 두둑 성형과 동시에 소독제를 지중살포하고, 비닐 피복 동시작업이 가능하다. 소독제 살포 과정에서 훈증 처리를 거치는 방식으로 토양 속 병원균과 해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복합 기능을 갖춘 토양소독기 기술은 단순한 병해충 방제를 넘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인 안전 확보, 농촌 노동력 부담 해소라는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상의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 전북 새만금이 최적지입니다" 제목의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에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

농축협 상생발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정읍시가 78억원 규모 2027년도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에 나선다. 이에 시는 지난 25일 지역 내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 관계자, 실무부서 담당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농축협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농·축협별 지역특화품목 지정과 육성 방향 △202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협의 △2026년도 협력사업 추진 현황 점검 △농업정책 방향과 상생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각 농협이 강점을 가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 육성 전략을 세

우는 데 뜻을 함께했다. 시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계약재배를 늘려 실질적 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구상했다. 또한 시는 2027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 78억6000만원 규모의 52개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농업부서의 타당성 설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묻고 답하며 추진 방향을 명확히 다짐었다. 앞으로 시는 특화품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육성 방향을 설정해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는 사업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상위 5% 기록 전국 684개 기관 중 최고 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684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도교육청은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를 받았다.

특히 상위 5%에 진입한 34개 기관 중 정부포상 대상인 5개 기관에 최종 포함되며 데이터 행정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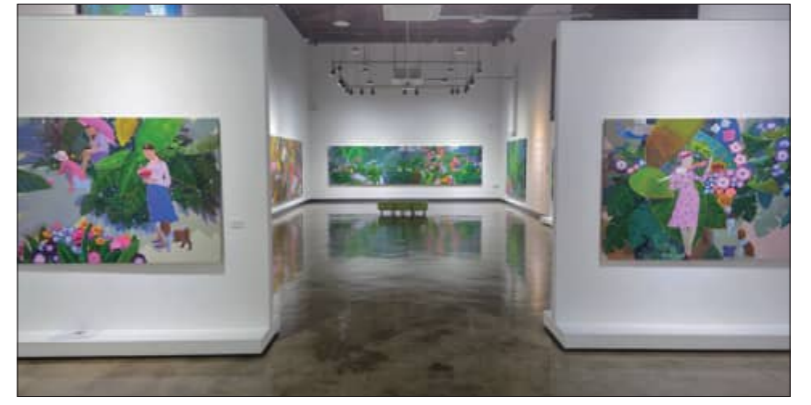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현안 해결에 통계 데이터를 지속 활용해 왔다.

아울러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직원 대상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정책 지원 체계 고도화 등 데이터 중심의 행정 환경 정착 조치를 이어왔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표창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혁신을 실천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의사결정을 강화해 교육 현장에 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최성민 기자



<사진=순창군>
순창공립미술관 '이존립 초대전' 열어

'소장품 기증전' 동시 조명

순창공립미술관이 본관과 섬진강 갤러리에서 기획전시를 동시에 개최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8월 2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본관의 '이존립 작가 초대전'과 섬진강갤러리의 '소장품 기증전-감사'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과 예술의 나눔 가치를 동시에 조명한다.

본관에서 열리는 이존립 초대전 'Scenery within-a happy day'展은 '정원'이라는 일관된 테마를 통해 생명력과 치유의 에너지를 선보인다. 작가는 실제하는 풍경을 넘어 유년 시절의 추억과 꿈이 깃어낸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캔버스 위에 펼쳐 보인다.

특히 동양화의 자연관과 모더니즘 회화의 원리가 깊게 드리워진 독창적인 구상 화풍이 눈길을 끈다. 화려한 색채들의 상호구성과 완숙한 질감을 통해 자연현상에 내재한 기운을 생동감 있게 포착해 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작들은 푸른 나뭇잎과 화사한 꽃들 사이로 등장하는 인물과 동물들은 인간과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평화로운 한때를 보여주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원초적인 위로와 휴식을 선사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생명력 가득한 이존립 작가의 정원 세계와 여러 예술가의 삶이 응축된 기증 작품들이 자아내는 송고한 울림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두 공간을 통해 자연과 예술, 나눔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별한 흐름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익산 백제왕궁의 추억, 연말 편지로 다시 만난다

관람객 호응 힘 입어 '느린편지' 상시 운영

익산시가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를 통해 백제왕궁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은 익산우체국과 함께 운영해 온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를 연중 운영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천년 백제왕궁의 느린 편지'는 전시를 관람한 뒤 느린 감정과 추억을 엮어 박물관 내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연말에 받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해 처음 운영한 당시 준비한 엽서 500장이 모두 소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박물관은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중 운영하기로 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확대했다.

이에 익산우체국 고객맞춤형 엽서 제도를 활용해 백제왕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그림엽서 3종, 총 600장을 새롭게 제작했다.

푸른 잔디와 문게구름이 어우러진 여름 풍경, 눈 덮인 왕궁리오층석탑의 절경, 탐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 등 계절마다 다른 백제왕궁의 매력을 담아 소장 가치를 높였다.

엽서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다.

관람객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욱 자유롭게 담을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최소화하고 필기 공간을 넓혀 편지를 쓰는 즐거움을 더했다.

참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시 관람 후 안내데스크에서 원하는 엽서를 1인



<사진=익산시>
1매 받아 미래의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전할 이야기를 적은 뒤 박물관 로비에 마련된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작성된 엽서는 오는 12월 31일 일괄 발송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큰 사랑을 받은 '느린 편지'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백제왕궁에서의 추억과 여운이 연말 한 통의 편지로 다시 전해지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도 '한국화 거장들의 화조화' 기획전시

'우리, 꽃길만 걸어요 : 근대 거장들의 화조화(花鳥畵)' 특별전 전시 통한 전북도 시각예술인들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난 26일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우리, 꽃길만 걸어요 : 근대 거장들의 화조화(花鳥畵)'를 지난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기획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2026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술관 '술' 주관으로 운영된다.

전북도가 지원하는 '우수기획전시 지원사업'은 도내 민간 문화시설 기획 역량 향상과 도민들의 시각예술 향유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 자원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주제 중심 전시를 유도해 예술 공공성과 문화 접근성을 확장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전시 제목인 '우리, 꽃길만 걸어요'에는 꽃이 상징하는 행복과 평안, 사랑과 희망의 의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한국화 거장들의 화조화를 중심으로 전북 미술사와 연관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한국화 흐름과 전북 미술의 뿌리를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서는 총 53점 작품이 소개되며 △장승업 △안중식 △조석진 △이응노 △박노수 △천경자 △채용신 △송성용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스승과 제자의 작품을 함께 배치해 한국화의 계보와 예술적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전시장 소재는 전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6 4층에 마련됐으며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전시는 휴관일 없이 운영된다.

/김영태 기자

연화정도서관 "도서관, 예술을 담다" 성료

전주시 연화정도서관 '도서관, 예술을 담다' 공연이 지난 27일 마무리 됐다.

'도서관, 예술을 담다' 공연은 연화정도서관 속 특별한 문화 일환 마련된 '독(讀) 특한 도서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연화정도서관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일상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북도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인 장문희 명창의 제자들 예인 집단 '사백연가'가 장식했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다양한 우리 소리를 통해 도서관을 찾은 시민

40여명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도서관, 예술을 담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국악과 시낭송, 클래식 등 다채로운 장르로 총 3회의 후속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내달 18일 오후 7시, 덕진연못 '여원문화공연' 시낭송 공연, 8월 8일 현악 킨트 '디네투' 현악 5중주 클래식 공연, 11월 14일 '사백연가' 판소리 무대가 대미를 장식한다.

관련해 관람 희망 시민들은 각 공연 일 3주 전부터 전주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AI·디지털 문해교육'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과학진흥원이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2026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진흥원은 지난 22일부터 지난달 신규 양성한 전문 강사 20명과 기존 강사진을 각 지역 학습 현장에 파견해 대면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과정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직면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 기본 활용법부터 무인 단말기 결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생활 밀착형 과업을 중심으로 한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진흥원은 26일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강사 파견 등 기관별 역할 분담을 확정했다.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진흥원은 이번에 구축된 실무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 수요를 파악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자원인보위기기경보 '주의' 발령중

에너지이껴쓰기 함께 해주세요!

1. 대중교통 이용하기
2. 실내 직장온도 유지
3. 불필요한 조명끄기 등 절전
4. 충전은 낮시간에

군산시, 내달 10일까지 전자바우처 이용자 모집

군산시는 2026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지난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아발달지원서비스,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정신건강토크케어서비스 등 총 14개 사업이며, 모집 인원은 약 1,400명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서비스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을 초과해 신청할 경우, 서비스별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내 사회서비스 자료 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경화 경로장애인과장은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실시로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바우처택시' 첫 운행

내달부터 35대 투입 "교통약자 보행권 확대"

정읍시가 내달 1일부터 비월제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택시 35대를 도내 시범 지역 중 가장 먼저 도입해 운행을 시작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영업을 하다가 임산부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호출이 접수되면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인 4개 시·군(정읍, 군산, 김제, 고창) 가운데 정읍이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선다.

시는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20대였던 계획을 대폭 수정해 총 35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운행 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되던 수요가 분산돼 전반적인 배차 효율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도 꼼꼼히 마쳤다.

시는 관내 택시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고 업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

지난 22일에는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불친절 방지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직무

<사진=정읍시>

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질을 높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던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넓히고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운영을 바탕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고 복지 수준을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영아 양육에 힘 보탠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익산시가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익산시는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확대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최대 2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지정된 사육처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아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둘째아 가구까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억 1,800만 원으로 도내 최대 규모다.

시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의 지원은 확대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첫째아 양육가구는 자체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우편배달 복지사각 "ZERO"

정읍시가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읍우체국 소속 집배원들과 함께 취약계층 100세대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직원이 복지 위기가 의심되는 가정에 생활필수품 꾸러미를 전달하면서 거주자의 주거 환경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뽑혀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큰 취약계층 100가구를 1차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집배원들은 대상자에게

물품을 대면으로 전해주는 과정에서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건장 상태는 어떠한지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등 생활 속 위기 징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업무 중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을 발견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담당 직원이 소통 창구인 '정읍이웃 복지동행'에 신고하거나 점검표를 작성해 시정에 상황을 알린다. 시는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 가구를 직접 찾아가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돕거나 상황에 맞는 물품을 지원하는 등 꼭 필요한 공공 복지 혜택을 빠르게 연결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선... 9월까지

정읍시가 낡고 불편한 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가정을 위해 시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26가구 가운데 15가구의 내부 보수를 마쳤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가 사는 낡은 집의 내부를 고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해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령과 가구 유형, 거주 기간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 26가구를 선정했다.

현재까지 15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11가구 공사도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를 마친 대상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6·25 참전유공자인 유수봉(95) 어르신은 "쾌적해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나이를 위한 젊은 날의 헌신을 잊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줘 고맙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출범 직무교육

익산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지난 26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당선인 2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와 직무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 당선인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먼저 익산시의회 현황과 회기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 한국산업기술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박사를 초빙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은 축하 인사를 나누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선인들은 내달 1일 제27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게 되며, 올 하반기에는 임시회 3회, 정례회 2회 총 다섯 번의 회기가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조계남 의회사무국장은 "제10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역 복합개발 정책 토론회 전문가 참여

정책자문위, 핵심 현안 중심 세미나형 토론회

익산시가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및 역세권 복합개발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익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핵심 현안의 정책적 해법과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대학교수, 연구기관 박사,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존의 관행적인 서면 보고나 일방적인 현황 공유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했다. 시정 핵심 현안에

대해 전문가 발제와 골자 토론회를 병행하는 '세미나형 정책자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회의의 실효성과 정책 집중도를 극대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궁문 정책자문위원장이 '고속철도(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및 복합개발의 방향'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제를 진행했다.

남궁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지역 간 환승체계 고도화 방안과 함께 교통, 상업, 문화,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복합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익산역을 단순한 철도역이 아닌, 익산 전체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회에서는 자문위원들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했다.

참석자들은 익산역 복합개발이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을 넘어 원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도시공간 구조 재편과 직결되는 사활이 걸린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또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를 돌파할 혁신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관계 기관과의 촘촘한 협력체계, 단계별 실행 전략이 융합돼야 한다는 실전적 대안이 나왔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정책 완성도를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고유가 지원금 접수에 '총력'

찾아가는 신청으로 지급 마무리 박차

정읍시가 내달 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접수를 하지 않은 1000세대에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현재 정읍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은 98.5%다.

시는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신청 기한과 방법, 이의신청 기간, 사용 기한, 사용처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보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속적인 안내도 이어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외국인 주민이나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맞춤형 홍보를 함께 진행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오는 8월 31일까지인 사용 기한과 주요 사용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접수부터 지급까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을 돕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감일 전에 반드시 접수하고 받은 지원금은 기한 안에 지역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마지막 한 분까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접수와 맞춤형 안내를 계속하고 신속한 지급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청년플 '1인 밥상 연구소' 운영

청년 1인가구 식생활 개선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 청년플 청년센터(센터장 김진아)가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주관하는 '2026 전북청년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참여예산을 활용해 청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고, 공동 조리 및 식사 활동을 통해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산시 청년플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비 1,150만 원을 확보했으며, "혼자 여도 잘 먹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요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1인 밥상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달음식과 편의식에 의존하던 식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식탁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1인 가구 생존밥상'(5회) △군산 지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 요리 실습 프로그램 '1인 가구 밥도둑 밥상'(5회) △식사를 매개로 참여자 간 교류를 지원하는 '네트워킹 데이' △참여 전후 식생활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 선착순 모집 방식이 아닌 참여 동기와 의지를 반영한 선발 방식을 도입해 프로그램 참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또한 참여 전후 냉장고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생활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군산센터와 군산시가족센터 등 지역 협력기관과 연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군산시 청년플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스스로 실천하고, 요리를 매개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군산 청년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익산시>

익산시,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익산시가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 학교와 손잡고 청소년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난 26일 익산시 학교지원단 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지원단은 청소년안전망과 학교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 우울·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익산지역 3개 초등학교와 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의 학교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사업과 학교 연계 위기청소년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신속한 개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관광객 맞이에 총력 2(題)

관광택시 50% 할인 이벤트

부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의 이동 편의 증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택시 요금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부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관광택시를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코스별 이용요금은 △3시간 코스 7만원에서 3만 5천 원 △5시간 코스 11만원에서 5만 5천원 △6시간 코스 13만원에서 6만 5천원으로 할인된다.

지난 5월 가정의 달과 여행가는 달을 맞아 실시한 관광택시 할인 이벤트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여름 휴가철에도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인 이벤트를 한 번 더 실시한다.

관광택시는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맞춤형 관광서비스로, 복잡한 교통과 주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관광택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운행 대수를 기존 5대에서 7대로 확대 운영해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광택시는 관광객들이 부안의 주요 관광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대표 관광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중심의 편리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만족도 높은 부안 여행을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임도정비 “안전 우선”

부안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관광객과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 주변 임도에 대한 예초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초 작업은 변산반도 일원 해수욕장과 인접한 주요 임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배수로 주변을 정비하는 등 임도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산발 및 산사태 등 각종 산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입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비를 통해 임도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산림휴양과 트레킹 등을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변산반도 일원임도를 함께 이용하는 만큼, 깨끗하게 정비된 산림환경이 지역 관광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산림 재난 예방은 물론 산림휴양 기능을 강화하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안=온봉기 기자



차량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산림휴양과 트레킹 등을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고창군, 해외유입 감염병 특별 당부

“방문국가 감염병 발생 현황 확인해야”

고창군보건소가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해외여행객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홍역, 뎅기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 입국 후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아 해외 여행 후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뎅기열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해외 체류 시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고창군보건소는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감염병 NOW 누리집을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 현황과 예방수칙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필요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 긴소매 착용 등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설사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해외유입 감염병은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감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불법 방문판매자 강력 대응”

관련 민원 증가 업소 점검·행정지도 강화

부안군은 최근 관내 중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방문판매업은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공짜상품 등을 제공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자발적인

구매 욕구에 의한 소비가 아닌 ‘무료’, ‘할인’, ‘최저가판매’ 등을 명목으로 사업자의 부당상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수칙”으로는 △‘이벤트 당첨’, ‘무료 체험’을 명목으로 상술에 현혹되지 않기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제품 구입은 신중히 결정하기 △계약서 작성 시 중도 해지 조건, 위약금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신용카드 결제 시 가급적 할부(3개월 이상, 20만원 이상)를 이용하기 △구입에 확인이 서기 전까지 제품 포장을 개봉하

거나 설치하지 않기 △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법적 청야철회 및 내용증명서 송부하기 △개인정보 제공금지 등이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의심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6·25 참전유공자 나눔 실천

‘보답 프로젝트’ 추진

김제시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인기 유튜브 ‘긴벌레(LongBug)’와 함께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뜻깊은 나눔을 실천한다.

시는 지난 26일 구독자 37.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긴벌레와 협업체 관내 6·25 참전유공자 10명에게 총 625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공동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긴벌레가 평소 김제시 SNS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중 김제시에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성사됐다. 특히 김제시가 추진한 ‘3·1절 미션 챌린지’를 비롯해 시민 참여형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소통 방식에 공감하며 후원을 제안한 것

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긴벌레는 평소 한계에 도전하는 콘텐츠와 기부를 결합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온 크리에이터다. 서울-부산 527km 중주, DMZ 완주, 국가보훈부 협업 러닝 챌린지 등을 통해 총 3.5톤의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나눔 활동에는 김제 지역 기업인 인생살임(대표 안훈민)도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기탁 금액인 625만원은 6월 25일을 의미하는 숫자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았다. 긴벌레가 30일 동안 다양한 일터를 직접 체험하며 마련한 수익금과 시청자 후원금, 그리고 본인의 사비를 더해 조성됐다.

특히 이번 기탁은 단순한 성금 전달을 넘어 긴벌레가 직접 참전유공자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김제시와 긴벌레의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보훈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SNS를 통해 시작된 관심과 공감이 참전유공자 후원이라는 뜻깊은 실천으로 이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주신 긴벌레 님과 구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고유가 지원금 신청·사용 독려

미신청자미사용자집중안내

김제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한내 신청 및 사용 독려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70,015명 중 98.4%에 달하는 68,909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일부 대상자가 있어 신청기한이 지급할 수 있도록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안내와 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고령자 및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용 독려에도 힘쓰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는 만큼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SNS 등을 활용해 사용기한을 집중 홍보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남아 있는 만큼 단 한 분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사용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부산 동래구서 수박 직거래장터 성료

고창군이 지난 25-26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광장에서 열린 ‘고창수박 직거래장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자매결연도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고창군 대표 농산품인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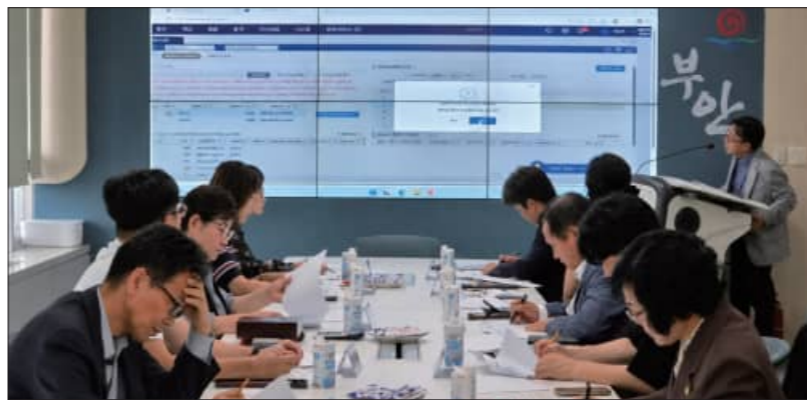
고창군 생산자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해 고창 흑수박과 블랙보스 수박을 비롯해 다양한 농특산품을 선보였으며, 행사장을 찾은 부산 지역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고창수박은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며 고창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창군은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고창 농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활력과정장은 “자매결연도시인 동래구 주민들께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직접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창 농특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홍보·판매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성실 지방세 납세자” 선정

부안군은 지난 25일 2026년 제2회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군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성실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최종 50명이 선정됐다.

또한, 성실납세 대상자 중 매년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개인과

매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개인 4명과 법인 1개소를 올해의 모범납세자로 선정·의결했다.

성실납세자 50명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부안사랑상품권이 전달되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인증패와 함께 군 운영 시설 이용료 면제, 군금고를 통한 우대금리 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시, 지목현실화 사업 완료 박차

김제시가 2개년여 걸쳐 추진하고 있는 지목현실화 사업의 완료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지지목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현실화 사업을 작년보다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래전부터 집이나 창고가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전, 답, 임야로 돼 있어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 시 제한이 있어 시민 불편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재산세(주택) 과세대상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7천5백여 필지를 2026년 전수 조사 대상으로 사전 확보, 이

중 126필 3만5천㎡를 최종 확정했다. 이 필지들을 대상으로 과거·현재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지목변경 등 공부정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2025년 103필에 대한 지목을 현실화해 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목현실화 사업은 재산권 행사 시 시민들에게 불편이 따랐던 부분을 해소해 주려는 적극행정으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수해위험 가구 배수로 설치 추진

고창군 성내면은 주거지 침수와 지반침하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취약계층 가구에 총 500만원 규모의 배수로 설치 공사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가구는 집 뒤편이 높은 경사지여서 비가 오면 빗물이 집안으로 흘러드는 취약한 구조였다. 특히 반복되는 빗물 유입으로 주택 기초부분이 가라앉는 등 붕괴위험이 커 긴급조치가 시급했다.

이에 성내면은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에 공사비를 신청

해 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추가로 부족한 사업비 200만원은 사회복지 취약계층 가구에 총 500만원 규모의 배수로 설치 공사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남태 성내면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이었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성료

김제시는 26일 김제국민체육센터에서 시민의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8회 환경기초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도사업소와 환경기초시설 운영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김제시 수도사업소·환경과·자원순환과 직원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자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행사에 앞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대행사 5개 업체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김제사랑학재단에 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한마음대회에서는 축구, 볼링, 탁구, 단체줄넘기 등 다양한 체육경기와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해당화토타리클럽 강예순 신임회장, 고향사랑기부 동참

부안군은 지난 25일 부안 K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부안해당화토타리클럽 회장 이·취임식에서 강예순 신임회장과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임회장에 대한 감사와 신임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회원과 내빈들이 함께 가운데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풍성하게 마무리됐다. 강예순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의미 있는 나눔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화합과 단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취임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실천해 주신 강예순 회장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순창을 더 새롭게” 최영일 군수 ‘출발’

7월 1일 제51대 군수 취임식 군민 참여 타운홀미팅 진행 의전 간소화 군민 소통 강화



<사진=순창군>

순창군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민선9기 제51대 최영일 순창군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은 최근 공직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임행사 간소화 기조에 맞춰 의전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과 소통하며 앞으로의 군정 비전을 공유하는 실용적인 행사로 마련된다.

특히 군은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라는 민선9기 군정비전 아래 형식적인 축하행사 대신 지난 4년간의 군정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과 함께 논의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의 공감토크를 중심으로 취임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전 9시 제일고 충훈탑 참배

를 시작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취임선서와 취임사 등이 진행된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군민 400여 명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민선8기 주요 성과와 민선9기 핵심 공약,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취임식은 군민 통합과 군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화합과 실용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라며 “대규모 초청과 의전 중심 행사보

다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간소화와 원활한 타운홀미팅 진행을 위해 별도의 초청장은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취임식을 통해 민선9기 군정비전을 군민과 공유하고, 앞으로 4년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순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휴면에노스, 바이오 연구성과 공유

도의회서 국제심포지엄 주관 하버드-메이오 클리닉 등 참여

완주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휴면에노스(대표 천현수)가 오는 7월 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회 산화질소 대사체 국제 심포지엄’에 주관사로 참여해 글로벌 바이오 연구 성과를 선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 중국, 미국 연구진이 공동 참여해 산화질소 대사체의 작용 기전 규명과 임상·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 교류 행사다.

행사에는 하버드대학교, 메이오 클리닉, 네바다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UC 샌디에이고를 비롯해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국내외 유수의 의과대학과 연구 기관 교수진이 대거 참여한다.

주요 발표로 부산대학교 신용일 교수가 ‘산화질소 대사체의 경도 인지장애 대상 인체적용시험 결과

와 임상적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외 연구진은 고혈압, 당뇨, 뇌혈관 질환, 갱년기 증상, 피부 건강 및 식품 응용 분야에서 수행된 비임상 및 임상 연구 결과와 작용 기전을 공유한다.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휴면에노스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의 ‘선도기업 기술 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휴면에노스는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과 더불어 지역 농가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한 상생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5년 상추·양배추 등 총 820톤의 도내 농산물을 수매한 데 이어, 올해는 2,000톤 규모로 수매량을 확대한다. 나아가 2027년 이후에는 연간 5,000톤에서 7,000톤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휴면에노스 관계자는 “연구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헌혈추진협의회 열어 혈액수급 협력 강화

남원시는 지난 25일 남원시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헌혈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헌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남원시보건소를 비롯해 언론기관, 경찰서,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등 관련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혈액 수급 위기를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체계 강화와 헌혈 장려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헌혈은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헌혈 참여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규제개선 우수 과제 수상작 선정

‘민원 위임장 서식 표준화’ 최우수 군민 체감 행정혁신 추진

완주군이 지난 25일 ‘2026년 제1차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군정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모 기간 개인 및 3인 이하의 팀 단위로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은 이번 위원회에는 당연직 및 민간 위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1차 심사를 통과한 5개 제안을 대상으로 각 아이디어의 행정적 필요성과 현장 실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종 심의 결과 한혜영 고산면 민원팀장이 제안한 ‘민원 신청 위임장 서식 표준화’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김윤성 감사담당관 주무관

의 ‘개발행위허가자 책임 완화를 위한 작곡신고·감리제도 도입방안’이 차지했으며, 이 외에도 3개 과제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려 총 5개 과제가 올해의 최종 수상작으로 확정됐다.

이종훈 부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현장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듬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행정 문턱을 낮춰 군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의료·복지 재능나눔으로 농촌 ‘활력’

전문의료진·비전대원광대 참여 적성면서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순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의료인,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군은 지난 26일 적성면 체육관에서 (사)생활안전보건연합, 전주비전대학교, 원광대학교 등과 연계해 주민 맞춤형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국비 지원 ‘농촌재능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생활안전보건연합이 사업을 수행하며, 농촌지역을 찾아 개인과 기

관·단체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주민들과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순창군은 지난 4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이번 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 보건의료원의 감염병 및 치매예방 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외부 전문 의료진과 보건 전문인력,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기초 건강검사와 건강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범죄예방 교육, 소방안전 체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의료·복지 서비스와 안전 교육을 한자리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경원 대표 완주군 발전기금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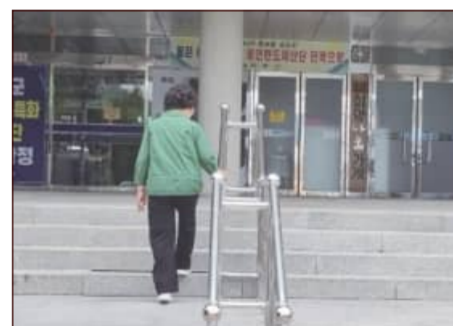
(유)선양건설 전경원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 대표이사는 평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완주군 발전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 대표이사는 “완주군이 더욱 활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침수 피해 예방 배수시설 정비

중계펌프장 정비 하수관로 준설 하수관로 10km 퇴적물 제거

남원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홍수기 및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중계펌프장과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계펌프장은 읍면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장으로 보내는 핵심 방재 시설이다. 하수관로 내 토사나 쓰레기 등 퇴적물이 쌓일 경우 배수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호우 시 외수 범람이

나 침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6월 중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침수 취약 구역과 저지대 지역의 중계펌프장 7개소 및 주변 하수관로 약 10km 구간을 집중 준설 대상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작업을 통해 하수관로 내 쌓여 있던 토사, 슬러지, 낙엽 등 대량의 퇴적물을 제거함으로써 홍수기 원활한 배수 흐름을 확보하고, 퇴적물 부패로 인한 여름철 고질적인 악취와 해충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남원시는 준설 작업 외에도 홍수기 전까지 중계펌프장 내 수문, 펌프 등 유수지 시설물에 대한 가동 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진 만큼, 철저한 사전 준설과 시설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남원시, ‘춘향 씨감자’ 해외 알린다

파라과이 방문단 현장 견학 조직배양·수확 현장 참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가 중남미 파라과이에 ‘남원 춘향 씨감자’의 선진 생산 체계를 선보이며 국제 농업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25일 남원을 방문한 파라과이 농목축부(MAG) 농업 차관 후 안몰리나스벨렌을 비롯한 방문단 20명을 대상으로 센터 내 주요 시설과 현장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의 감자 재배 면적은 시설감자 95ha, 노지감자 50ha를 포함해 총 145ha에 달한다. 이 중 ‘춘향 씨감자’는 금지면 시설감자 재배 단지에 보급 증진으로 공급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산 감자보다 1개월 빠른 9~10월에 공급되어 이듬해 2월 초·중순에 수확이 가능하며, 시장 선점 효과가 크고 농가 만족도도 매우 높다.

현재 15개 농가(0.1ha)에서 연간 140톤 규모로 생산되는 춘향 씨감자는 철저한 포장검사(2회)와 종자검사(2회)를



<사진=남원시>

거쳐 자체 종서로 보급된다. 센터는 방문단에 이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농가의 생산비와 종서량 절감에 기여하는 남원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부각했다.

이날 파라과이 방문단은 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은 뒤, 조직배양실과 씨감자 생산포장을 견학하고 실제 감자 수확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남원시 씨감자 생산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

였다. 유수경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은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파라과이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의 씨감자 생산체계를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국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와 파라과이의 농업정책 수립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완주군, ‘제2회 호국영령 추모제’ 거행

완주군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2회 호국영령 추모제’를 지난 26일 엄숙히 거행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유희빈)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에는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유희대 완주군수를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유가족, 내외 귀빈 및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희대 완주군수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숭고한 정신이 잊히지 않도록 군민과

함께 끝까지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국가유공자 보훈 의미 되새겨

순창군은 지난 25일 장미가든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6·25참전유공자회 순창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참전유공자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기념사, 6·25의 노래 제창,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과 6·25전쟁 시기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향년 23세에 순국한 순창 출신 정진호 애국지사의 추모식을 함께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고향



<사진=순창군>

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예우하는 것이 진정한 보은이자 보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계단 안전 손잡이 설치

완주군 고산면이 걸음이 힘겨운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안전한 청사 방문을 위해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현관 계단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행정복지센터 진입 계단은 이동에 큰 제약이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고산면은 어르신들의 처지에서 청사 이용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해소하고자 계단 중앙에 튼튼한 금속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보훈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

유지숙 고산면장은 “앞으로도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문턱을 낮추고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여성 증진 '앞장'

'장수군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역 여성건강 증진·화합

장수군은 지난 25일 천천면 하늘내체육관에서 지역 여성들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한 '2026 장수군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군체육회(회장 이성철)가 주최하고 장수군여성체육협의회(회장 이숙자)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이정우 장수군부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차현주 회원이 전북특별

자치도지사 표창을, 한원 회원이 장수군수 표창을, 이해란 회원이 장수군의회 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송수란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계장은 여성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수군여성체육협의 회장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체육활동과 다양한 화합 프로그램에 함께하며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을 보냈다.

이순자 여성체육협의회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들이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 추진

생활개선회원 355명 대상 순회교육 운영 완료

장수군은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생활개선회원 35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여성리더 양성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읍·면별 순회하며 농촌 여성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농작업 재해 예방교육을 비롯해 △농작업 보조구 지원, △근로환경 조, △생활과제교육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장수군 생활개선회는 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하천정화활동, 이웃돕기 등 지역

사회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평소 알고 있던 농작업 안전수칙도 실제 영농활동에서는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생활개선회는 지역사회를 이끄는 농촌 여성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제9대 임실군의회 폐원식 <사진=임실군의회>

제9대 임실군의회 폐원식

4년 의정활동 마무리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26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임실군의회 폐원식을 열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폐원식에는 장종민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심민 군수, 관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직기념패와 감사패 전달, 폐원사 운으로 진행됐다.

제9대 임실군의회는 군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200여 건의 조례를 발의·처리하는 등 군민 의뢰를 받기 위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중

심 의정활동과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를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방송 실시간 송출,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농업 보조금 예산의 점진적 확대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장종민 의장은 폐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제9대 임실군의회가 군민 기대에 부응하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9대 의회의 성과와 경험 이 임실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임실군의회가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노인 일자리 정책 데이(DAY) 운영

안전·근로환경 개선 의견 신규 사업 아이디어 청취

무주군이 오는 11월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정책 데이(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책 데이(DAY)'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직접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근로환경 개선 의견을 듣고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 수행상의 어려운 점 등을 살핀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선순환형 참여 행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무주군민회관에서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정규)가 주최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정책 데이(DAY)가 개최돼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이 자리에서 △참여자가 간소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의 건의 사항과 △응급처치교



육 강화 등의 안전·근로환경 개선 의견을 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의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고령 참여자를 고려한 신청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우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며 '정책 데이(DAY)'의 의미를 새겼다.

무주군은 고령 참여자를 위한 의견수렴 방식으로 큰 글씨 서식과 구두 제안

방식을 적용한 '말하는 제안함' 등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즉시 개선 가능 사항, 제도개선 필요 사항, 중앙부처 건의 사항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수행기관, 참여자와 공유할 정책 참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기저귀·조제분유 대상 확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장수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

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공동생활 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도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심민 임실군수, 12년 대장정 마무리

꽃과 함께 천만관광시대 활짝

심민 임실군수가 지난 26일 군정 문화강좌실에서 열린 퇴임식을 끝으로 12년간 이어온 군정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군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축복 속에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박희승 국회의원과 한득수 군수 당선자를 비롯한 지역 주요기관·사회단체장·전현직 공직자,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임실군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심민 군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아쉬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퇴임식은 재임기간 주요공적 소개와 공로패 전달, 퇴임사 운으로 진행됐으

며, 참석자들은 지난 12년간 임실군의 눈부신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 온 여정을 함께 돌아보며 아낌없는 박수로 이 어졌다.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임실군수로 취임한 이후 민선 7기와 8기까지 연이어 군민의 선택을 받으며 12년간 흔들림 없이 군정을 이끌어 왔다.

정당의 지원 없이 군민들의 신뢰와 지지만으로 무소속 3선 연임이라는 지역 정치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강한 추진력과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임실군의 성장과 변화를 견인했다.

심민 군수의 재임 12년은 임실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낸 도약과 혁신

을 이끈 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실N치즈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임실N치즈축제를 통한 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성장시켰다. 특히 옥정호 봉어선 생태공원과 출렁다리 조성으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를 탄생시켰다.

이와 함께, 오수 의견관광지의 반려동물 산업육성, 성수산 왕의숲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계절 축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농업경쟁력 강화, 생활SOC확충, 복지서비스 확대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내며 임실군의 미래 성장 기반을 탄탄히 구축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민 구강건강 홍보주간 추진

장수군보건의료원이 제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를 구강보건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거리 캠페인과 구강건강관리교실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인 어금기가 나오는 나이인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한자 '구치(臼齒)'의 '구(臼)'를 숫자 '9'로 표현해 매년 6월 9일로 올바른 구강관리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올해는 '함께 지키는 구강건강, 이(齒)로운 노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건강한 치아 관리와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지난 8일에는 장계시장에서 구강관리용품과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구강보건사업 홍보 거리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이어 26일까지 지역 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와 활동지를 활용한 올바른 칫솔질 교육 △작색치약을 이용한 치면세균막 관찰 △불소바니쉬 도포 등 체험 중심의 구강건강관리교실을 운영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바둑·장기대회 개최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이강년)는 지난 23일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전통 놀이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제12회 지회장배 어르신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 임실군수 당선인 한득수, 임실군의회 의장 장종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박정규 및 각급기관 단체인 장수군 노인회 임원, 선수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들의 지적 기능을 거르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년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기 지역의 명예를 걸고 치르는 대국이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며 경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 결과, 바둑부문 1위는 임실읍분회, 2위는 성수면분회, 3위는 덕치면분회, 장려상은 지사면분회가 차지했으며 장기부문 1위는 관촌면분회, 2위는 오수면분회, 3위가 삼계면분회, 장려상은 지사면분회가 차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농업인, 시농장 홍보 나선다

진안군이 지역 특화작목 농업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하며 농업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앞서 총 4회에 걸쳐 AI 활용한 농장 홍보 이미지를 기획·제작하는 기초과정을 운영했다.

기초과정에 이어 내달 0일까지 6회에 걸쳐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17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AI 기반 라이브 커머스 스크립트 작성과 농장·농산물 홍보를 위한 숏폼 기획·제작으로 구성됐으며 농업인들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노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AI는 이제 농업인들의 새로운 홍보 도구이자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AI 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들이 온라인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탁구 호프스(U12) 국가대표 선발

전국 초등학교 48개팀 열린 경합

2026년 탁구 호프스(U12) 국가대표 선발전이 지난 26일부터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다.

29일 막을 내리는 이 대회는 초등학교 탁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사)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이 주관하며, 전국 초등학교 총 48개 팀 선수 178명이 참가해 열린 경합을 벌인다.

참가 선수들은 모두 만 12세 이하로, 6학년부는 남녀 상위 1~40위, 5학년부

는 남녀 상위 1~20위, 4학년부는 남녀 상위 1~10위까지의 선수들이며, 3학년은 제52회 대한탁구협회장기 대회 남녀 1~3위에 오른 선수들이다.

이들은 지난 26일과 27일 남녀 조별 예선리그전을 펼쳤으며 28일부터 각 조 1, 2위 선수들이 최종 리그전을 통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여기에서 선발된 남녀 각 6명씩 총 12명의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오는 11월 개최되는 2026 동아시아 호프스[U12] 대회 등에 출전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스마트 기술로 농촌 안전 지킨다"

임실군이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취약한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 단말기 및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는 안전망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현장 설치가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 작업은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난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며, 농기계 안전서비스 단말기 83대와 스마트 가로등 275대를 관내 전역에 설치하고 시스템 연동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이동약자용 전동보장

구 단말기 184대와 트랙터 등 농기계용 단말기 83대가 지급된다. 이 단말기들은 운행 중 쓰러짐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보호자와 CCTV통합관제센터에 위험 상황을 즉시 전송함으로써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 가로등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 275개소에 태양광 자가발전 방식을 적용한 스마트 보안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지키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댐 지원사업 선정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진안군이 지난 25일 한국수자원공사 주관한 '댐 지원사업 지자체 일 반 신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주민 생활편의와 용담호 관광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수차례 사업계획 보완과 발표 준비, 관계기관 협의 등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이뤄낸 결과이다.

선정된 '진안 스마트 그린로드 구축 사업'은 주민 생활교통과 관광·체육

거점을 친환경 이동 서비스로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으로, 관광·주민 연계형 친환경 DRT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댐 주변 주민들의 이동편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의 교통편의성을 제공하여 지역 소비가 확대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순환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K-water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기반으로 향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추가 응모하여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김제시 백구면 복지공동체, 취약계층 에어컨 필터 청소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공동체(대장 유종환)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지역 내 취약계층 60세대를 대상으로 에어컨 필터 청소 활동을 추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 증가에 앞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공동체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에어컨 필터에 쌓인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냉방기 작동 상태를 함께 점검했다. 또한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건강 상태를 살피며 폭염에 대비한 안부 확인도 병행했다.

유종환 복지공동체대장은 “무더운 여름이 다가 오기 전에 취약계층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풍악복지재단, 정식품으로부터 공물 200인분 지원 받아

사회복지법인 풍악복지재단은 지난 23일, 정식품 전북영업소로부터 시설 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여름맞이 특별식용 공물 200인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다가오는 복달임 철과 무더위에 지치지 쉬은 소외계층의 기력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공물 200인분은 풍악복지재단 산하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영양가득한 여름철 특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식품 전북영업소 최병근 소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풍악복지재단 하정섭 대표이사는 “후원해주신 소중한 공물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식으로 맛있게 대접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농협 완주군지부, 범농협 농촌가치 실현

감자 수확 작업 지원 농촌의 가치 되새겨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지난 26일 완주군 소양면 감자 재배농가에서 범농협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기에는 농협 완주군지부, 전북지역보존센터, 농협케미컬, 소양농협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감자 수확 작업을 지원하며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무거운 날씨 속에서 감자 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

리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유해광 소양농협 조합장은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삶의 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천연 완주군지부장은 “농촌일손돕기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범농협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나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지난 26일 완주군 소양면 감자 재배농가에서 범농협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자랑스러운 환경미화원의 명예 퇴직

최영춘 회임에 정읍시 축하

일평생 환경 미화에 힘써온 최영춘 환경관리원 노고에 정읍시가 큰 박수를 보냈다.

지난 25일 정읍시는 최영춘(60) 환경관리원의 정년퇴임을 열고 그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동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퇴임을 맞은 최 환경관리원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생활폐기물을 수

거하며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을 누벼왔다. 그는 또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근무 자세로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청소행정 발전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퇴직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퇴직자의 활동 현장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한 뒤 꽃다발을 건네며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정읍=김정영 기자



정읍시 최영춘(60) 환경관리원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모습. /정읍=김정영 기자



(주)우주엔비텍 익산사업소, 백미 기탁

익산시는 지난 26일 (주)우주엔비텍 익산사업소(대표 광태현)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백미 10kg 60포(2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백미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독거노인과 저소득가구, 위기가정 등 식료품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태현 대표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의

뜻을 모아 쌀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익산시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우주엔비텍 익산사업소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기탁된 백미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농업정책과, 농가 찾아 함께 작업 지원

부안군 농업정책과는 지난 26일 동진면 일원에서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력 수급 불안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날 농업정책과 직원들은 동진면 귀농 신지식 농업인 함께 재배농가를 방문, 하

우스 함께 즐기 슈기 등 작업에 참여해 적기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보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부안=은봉기 기자



임실군 강진면,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 실시

임실군 강진면(면장 김영숙)은 지난 22일부터 5일간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작업은 강진면 관내 주요 도로 13개 노선, 총연장 약 56km 구간에서 진행됐다. 면은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덩굴 등을 말끔히 정비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영숙 강진면장은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강진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 LH삼봉사회복지관, 취약계층에 여름 꾸러미 전달

완주군 LH삼봉사회복지관(관장 임평화)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완주군 내 이웃들을 위해 폭서기 대비 꾸러미 박스 25개를 전달하며 ‘희망여름 착착 착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번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정, 삼봉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지역주민,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 대상자 등 지역 내 폭염 취약계층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달한 꾸러미 박스는 1인당 약 10만 원 상당의 여름맞이 물품으로 구성됐다. 폭염 시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는 홀이불과 선풍기를 비롯해 여름철 위생관리를 위한 모기퇴치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핫반, 삼계탕 키트, 참치캔 등 식료품을 담았다.

임평화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4가지 참여방법

1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2

손씻고 종이타월 대신 개인손수건사용

3

요청시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사용

4

일회용 종이용기 대신 도시락 사용

〈一事一言〉



회전문 폴리널리스트, 그 부끄러운 언론 사냥꾼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선거철만 되면 지역 언론계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진다. 어제까지 펜과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 앞에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기자들이 하루아침에 언론사에 사표를 던지고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로 직행한다. 그곳에서 그들은 감시자가 아닌 열혈 '선거꾼'이 되어 표를 구걸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선봉장에 선다. 기자의 날카로운 펜대는 어느새 권력의 단맛을 좇는 확성기로 변질된다.

진짜 비극은 선거가 끝난 뒤에 벌어진다. 자신이 공을 들인 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은 대변인이나 공보관, 정부특보 같은 감투를 쓰고 행정관청의 요직으로 맹렬히 진입한다. 권력을 감시하던 주체가 단숨에 권력의 핵심 기관에 앉아 공무원 신분으로 언론 통제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반대로 후보가 낙선하면?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기존 언론사나 또 다른 매체로 복귀해 다시 '기자질'을 시작한다. 2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 때마다 언론사와 정치권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이른바 '회전문 폴리널리스트(Polinalist)'들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폴리널리스트는 정치(Politics)와 언론인(Journalist)의 합성어로, 언론인으로서의 명성과 영향력을 발판 삼아 정계나 권력 기관으로 직행하는 변절적 언론인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용어다. 언론인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정계를 향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선진 언론사들은 현지 언론인이 정계로 갈 때 서슬 퍼런 엄격한 제한을 둔다. 정치를 하려면 언론계를 완전히 떠나야 함은 물론, 정계 은퇴 후 복귀하더라도 최소 수년간은 정치나 행정 관련 보도를 하

지 못하도록 철저한 '냉각기'를 제도적으로 강제한다. 언론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다. 반면 우리나라, 특히 지역 언론계의 현실은 참담하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당선인의 '입'이나 공보관으로 곧장 직행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며 매년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직행과 회전문 행태가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쏟아낸 보도의 '순수성'을 통째로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공정하고 바른 보도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유력 정치인에게 부지런히 공을 들이는 기자의 눈에 객관적 사실이 들어올 리 만무하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프레임 짜고, 불리한 의혹은 덮어주며, 경쟁 후보에게는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는 식의 편파 보도가 과연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들이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목적을 위해 펜을 휘두르는 순간, 독자와 도민들이 누려야 할 알 권리와 공론장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왜곡된다. 결국 이러한 기자들로 인해 저널리즘의 고고한 가치와 공정성이 통째로 훼손되고, 사회의 목탁이여야 할 기자가 대중에게 '기레기'라는 모멸찬 이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서 저널리즘의 최소한의 직업윤리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라거나 "언론 경험을 살린 소통"이라는 해괴한 변명들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 자치단체장들 역시 자신들을 향한 언론의 비판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홍보 수단으로 삼기 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대다수 동료 기자들까지 도마 위에 올라 "기자들은 어차피 다 한통속"이라는 비난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주범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 부조리한 관행은 이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나 정계 진출의 대기실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다면 민주주의의 보루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지역 언론계도 해외 선진국들처럼 뼈를 깎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 보도나 정치 취재에 관여한 기자가 정계나 자치단체 캠프에 진입할 때 엄격한 '취업 유예기간'을 갖도록 윤리강령을 법제화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선거 패배 후 언론사로 복귀하려는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페널티를 부과해 다시는 언론계에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가야 한다.

스스로 권력의 품에 안겼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 감시자의 가면 쓰는 이들에게 더 이상 저널리즘의 고고한 가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언론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권력에 취해 펜을 쥐고 시장 바닥을 기웃거리는 선거꾼 기자들을 과감히 쫓아내고, 흔들리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만이 지역 언론이 살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지역 언론계가 부끄러운 관행을 청산하고, 권력 앞의 당당한 감시자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설

음소의 정치 끝내고, 경쟁력으로 국가전략산업 따내야

국가전략산업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은 지역 안배나 정치적 배려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은 철저히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전북은 또다시 "우리에게도 일부를 배치해 달라"는 음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전북은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 새만금 사업 등 굵직한 현안마다 "전북도 소외돼선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왔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경쟁력을 대신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중앙정부를 향해 손을 내미는 정치만 반복해서는 어느 순간 그 손마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은 특히 그렇다. 풍부한 전력과 우수, 연구기관, 전문인력, 기업 생태계, 물류망 등 복합적인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을 설득하는 것은 "전북도 나눠 달라"는 호소만 아니라 "왜 반드시 전북이어야 하는가"를 입

증하는 치밀한 전략이다. 명분은 호소할 수 있지만, 투자는 설득해야 한다.

새 도정이 출범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사고를 바꿔야 한다. 선거 때 내세운 거창한 공약이 선거가 끝나자 '분산 배치'를 요정하는 수준으로 후퇴한다면 도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산업 전략이다.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새만금, 농생명 산업 등 전북만의 강점을 반도체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먼저 찾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기업과 정부를 찾아다니며 사정을 하는 것이 도정의 비전일 수는 없다.

이제 전북은 '소외론'이라는 익숙한 프레임과 결별해야 한다. 언제까지 피해의식에 기대 중앙정부의 배려만 기다릴 것인가.

국가전략산업은 동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따내는 것이다. 전북이 선택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택받을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선 9기 전북도정이 반드시 증명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도민이 새 지도부에 보내는 가장 준엄한 명령이다.

독자투고

스토킹범죄, 누군가의 일상을 몰래 따라가는 범죄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일상이 담긴 공간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이동경로를 모두 알고 있다면 어떻게. 평범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뀔 수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감시다. 작은 기기 하나만 차량에 몰래 부착해도 피해자의 이동경로와 생활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최근 우리 경찰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탐지 활동을 실시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업체와 함께 차량 하부와 범퍼 내부 등

위치추적기 은닉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정밀 점검했다.

수사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본질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감시는 상대방의 자유와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소행화된 기기 특성상 일반인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이 범죄가 남기는 가장 큰 상처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피해자는 익숙했던 일상마저 경계하게 된다. 누군가 자신의 동선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거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범죄는 때로 보이지 않는 감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이를 막는 힘은 관심과 신고,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망 속에 있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사 정윤정

오늘의시

법칙 / 류근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허공에 흩어진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허공에 흩어진다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인다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구름에 매달린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잎사귀에 매달린다	사는것도 죽는것도 한 몸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빗방울 하나로 몸을 바꾼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물방울 하나로 몸을 바꾼다	우주 안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

시인 약력 : 1966년 문경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랐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려져 유명세를 탔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상처적 체질'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 가-00022(법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품격도시 익산' 시민과 함께 달린 10년

정현울 시장이 이끈 익산시정이 민선 6~8기를 거쳐 마침내 10년의 위대한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더 큰 익산, 위대한 시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쉽 없이 달려온 지난 10년은 익산시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지형 변화와 질적 성장을 이뤘던 황금기로 평가받는다.

해묵은 현안을 정면 돌파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선점한 정현울 시장의 리더십은 익산을 호남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웠다. 임기 종료와 함께 민선 9기로 바통을 넘기는 정현울 호 10년의 성과와 도시 대전환의 발자취를 '지음', '키움', '보듬'의 3대 테마로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 지음(새로운 익산을 짓다)
정현울 호 10년의 가장 가시적 성과는 도시의 하드웨어를 완전히 새로 복원하고 재창조한 '지음'의 서사다.

가장 대표적인 결실은 익산의 새로운 상징이 된 신청사 건립이다. 시는 무려 54년이 경과해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던 노후 구청사를 시민 중심의 열린 복합청사로 재탄생시켰다.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을 넓혔다.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교통 인프라의 막힌 혈맥도 전격적으로 뚫어냈다. 주민의 숙원이었던 호남고속철도 평화육교 개체공사를 안전하게 완공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산단 배후 길목인 하나로(제3산단-연무IC)를 착공 10년 만에 완전히 개통했다.

이로써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며 물류 수송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구도심 역시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과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을 통해 유통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등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다.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 교통 자족도시로의 진화도 마쳤다. 스마트 주차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도심 주차난을 과학적으로 해결했으며, 익산역 주차타워 건립과 대리주차 서비스 도입으로 역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현재는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첨단 모빌리티 도시로 전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인프라의 견고함은 안전 분야 성과로 이어져,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 체계화는 물론 전북 최초로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대기록을 세웠다.

◆ 키움(익산의 내일을 키우다)
익산의 내일을 가꾸는 '키움'의 핵심은 민생 경제 활성화와 미래 첨단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다.

정현울 호는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대한민국 농촌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신재생에너지 수의 등을 고령층 농민에게 연금으

국가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공약 이행 5년 연속 우수 미래·혁신·철학 다져진 토대 민선 9기 도약 원동력으로

로 환원하는 이 모델은 전국적인 표준으로 확산됐다.

또한 농가 소득 증대의 일등 공신인 '마을전자상거래' 육성을 통해 영세 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전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유통망을 안착시켰다.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의 영토 확장도 돋보인다. 국내 최초의 그린바이오 벤처캐피트를 유치해 조성했으며, 동물원 스케어 클러스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확정 지으며 고부가가치 바이오·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났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산단 최초 3대 특구로 선정되는 행정 성과를 달성하며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의 법적·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많은 시민들이 갈망하던 호남권 첫 '코스트코 점포'의 개점 추진 역시 막바지 행정 절차를 완결하며 착공 준비를 본격화했다.

익산의 자립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익산 다이로움'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이로움은 지역 내 소비 증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시민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청년들을 위한 행정적 배려도 잊지 않았다. 대한민국 1호 '청년시청'을 개칭해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주거와 문화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컨트론타워를 구축하며 젊은 도시 익산의 토대를 탄탄히 다졌다.

◆ 보듬(모두의 삶을 보듬다)
과거의 아픔과 환경 오염이라는 해묵은 불명예를 치유하고 시민의 삶을 보듬는 '보듬' 정책은 정현울 호의 인간 중심 철학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국적인 전환은 남산 폐석산의 불법매립 폐기물을 전격적으로 이적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환경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과감한 결단이었다.

더불어 악취와 오염의 근원지였던 왕궁 현역축사의 매립 및 매입을 마침내 100% 완료했다. 이 자리에 친환경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왕궁 환경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기적을 일궈내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함께 광역상수도 전환을 이뤄낸 것 역시 기억할 성과다.

회색빛 공업도시의 이미지는 맑은 숨을 쉬는 '녹색 정원 도시'로 변모했다. 도심 속 허파를 확보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심 곳곳에 대형 공원을 조성했다.

여기에 전북 도내 최초로 국립 치유의 숲을 성공적으로 유치 및 조성하며 중부권 최고의 생태 힐링 거점을 완성했다. 복지 안전망 역시 한 치의 빈틈없이 촘촘하게 구축됐다.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다이로움 나눔 공간'과 '다이로움 이동 밥차'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존엄하게 보장하는 익산형 나눔 문화의 상징이 됐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사다리' 정책을 과격적으로 펼쳐 청년층의 지역 안착을 도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선도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며, 보육부터 고등 교육, 취업까지 연계되는 공공 교육 혁신의 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

정현울 시장은 "익산의 대전환을 믿고 지지해 주신 위대한 시민들이 계시기에 국가예산 1조 원 시대와 5년 연속 공약 이행 우수라는 대기록이 가능했다"라며 "견고한 주춧돌 위에서 새롭게 출발할 민선 9기 익산시가 더 높고, 더 위대하게 비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JBT 전북 타임스 신문

제14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26년 6월8일(월)~7월9일(목)

주제: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

공모 기간	접수 기간: 2026년 6월 8일~2026년 7월 9일	참가 자격	전북도내 초등학생
	결과 발표: 2026년 7월 13일	출품 형식	8절지 도화지(B4 용지)
	수상자 시상: 2026년 9월 4일	출품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문의 사항	이메일: jbn8800@daum.net 전화: (063)282-9601 / 010-7454-1559		

대상(3명)	전라북도교육감상(1명) 전라북도의회장상(1명) 전라북도지사상(1명)
최우수상(4명)	전주시장상(2명) 전주시의회장상(2명)
우수상(20명)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장상
장려상(50명)	(주)전북타임스신문 대표이사상
	특별상(3명) 국회의원상

기타 사항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정으로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 · (주)전북타임스신문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